

LG생활건강 조세정책

고객과 거래시 세법을 준수하고 각종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입니다. LG생활건강은 국내 및 당사가 진출한 해외 각국의 법규에 따라 성실한 세무신고 및 납부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의 세무 담당 임직원은 과세 당국과의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사전 세무검토를 수행하며, 중대한 사안은 개별 사안 단위로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 리스크 관리

LG생활건강은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목별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세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 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의사결정 전 사전 세무검토를 통하여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세법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조세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납세 내역 공개

LG생활건강은 법인세 관련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보고서 및 주석사항에서 법인세 비용 산출 기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법인세 비용 구성 내역 및 유효세율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납세 의무 이행

LG생활건강은 해외법인과 거래시 국내 세법 및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한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각국 과세당국 간 이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를 통해 사전에 이중과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에 따른 각국의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국가간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조세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가에서 창출된 가치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소득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형자산, 금융자산 등을 실효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가치를 이전하는 등 조세 관할권이 낮은 지역으로의 가치 이전을 금지하고 상업적 실체가 없는 조세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며, 조세 피난처(Tax Havens)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